

별별신문

37호

| 발행일자 | 2018년 2월 8일

| 발행인 | 별별신문_용,유나,별,달래,차차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로 여관 방화 사건에 부쳐..

20일 종로 한 여관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여관밀집지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성구매를 시도했고,
여관에서 거부하자 핫김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불을 낸 사람의 행동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요구하고 억지 부리고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다른
구매자들의 행동들과 유사합니다.

자신을 무시한 것처럼 느꼈을까요? 무엇이 그리 화가 났나.. 성구매를 거부한 게 그리 화가 날까..
다들 하는데 나만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관의 화재는 1만원~2만원 정도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중장년 여성의 다른 일자리에 비하면
아주 높은 시급입니다.

성구매가 일상인 한국남성문화와 빈곤한 중장년여성계급의 현실이 만난 현장이 여관바리입니
다. (뒤쪽에서 계속)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톡

화재가 쉽게 진압되지 않은 이유로 열악한 지역상황을 꼽습니다. 좁은 골목에 밀집해 있는 협소한 거주공간...

대부분의 집결지 쪽방촌과 근방의 여관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요.

어떤 대안도 없이 이런 공간을 재개발하겠다고 밀면 빈곤한 이들은 또 다른 협소하고 안전하지 않은 쪽방으로 이동합니다. 꼭 방화사건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빈곤한 이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빈부 격차 상관없이 안전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도시 개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번 사건을 이유로 낙후 지역이 대책 없이
밀리거나 여관을 타겟으로 한 단속이 강화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성구매문화의 일상화, 여성 빈곤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졸속행정으로 실적만 올리는 정책을 대안
이라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이룸상담소 02-953-6279